



광주FC가 지역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선수 이적 오피셜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이색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5·18기념공원의 토마스, 전남대를 배경으로 한 신인 조성권과 정지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포즈를 취한 티모.



/광주FC 제공

확 바뀐 광주FC의 ‘오피셜 마케팅’

전남대·문화전당·DJ센터 등
광주 랜드마크 배경 사진 공개
생활 속 물질약 캠페인도 동참

광주FC는 2일 네덜란드 출신 새 외국인 선수 티모(29)의 영입을 발표하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배경으로 한 오피셜(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광주FC는 광주에 있는 호남권 최대 전시컨벤션센터를 배경으로 선수 사진을 찍어 연고지 광주의 특징을 한국은 물론 네덜란드 축구팬들에게 알렸다.

광주의 오피셜 사진 변화는 이번 시즌부터다. 구단 경기장이나 클럽하우스 배경이 아닌 연고지 랜드마크나 명소를 배경으로 오피셜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K리그 흐름에 동참했다.

최근 오프시즌 기간 K리그 구단들은 선수 이적 발표 사진에 ‘의미’를 담아 발표하는

추세다. 구단 별 연고지의 대표적인 장소를 찾아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어 공개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플로깅 참여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도 한다. 이에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단순한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아닌 연고지 홍보까지 겸하면서 새로운 마케팅의 방법이 됐다.

광주FC도 2023시즌을 맞아 이적 오피셜에 ‘광주’의 색을 담기 시작했다. 5·18 사적지인 전남대학교와 5·18기념공원, 문화도시로서의 랜드마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배경으로 영입 선수 오피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알바니아 출신 특급 윙어 아사니(27)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늘마당과 지하 내부를 잇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옥외형 에스컬레이터에서 유니폼을 입고 찍은 오피셜 사진을 공개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신인 듀오 조성권(21)과 정지훈(18)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5·18 사적 1호인 전

남대학교 정문에서 오피셜 사진을 촬영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29)와 네덜란드 출신 수비수 티모도 각각 5·18기념공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배경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찍었다.

기존처럼 구단의 상징성을 담아낸 엠블럼, 홈 경기장의 배경의 사진에서 색다른 시도로 찍은 오피셜 사진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는 이적 선수 사진 공개와 함께 배경이 된 광주의 상징 장소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의미를 더했다.

K리그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이른바 ‘오피셜 마케팅’을 가장 먼저 시도한 팀은 제주 유나이티드다. 제주 구단은 지난 2019년 최규백을 영입하면서 한 획을 그은 고깃집에서 입단 사진을 촬영했다. 지역 명소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에도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한라산, 매일올레시장, 천지연 폭포를 배경으로 한 오피셜 사진을 내세워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 울산 현대는 울산현대중공업과 전

파천문대, 대왕암공원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은 모기업인 하나은행과 엑스포공원 내 한빛탑 등에서 오피셜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했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에 K리그1로 승격하면서 광주의 느낌을 더해 오피셜 사진을 촬영했다. 연고지의 특색 있는 장소를 모색했고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옥외형 에스컬레이터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국내 축구팬들은 물론 외국인 선수를 통해 해외팬들에게도 광주의 5·18사적지와 명소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울러 광주는 팬들과 지역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도 실시했다. 광주는 가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물 부족 극복을 위해 ‘생활 속 물 절약 20% 동참’ 캠페인 영상을 제작,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광주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추후 캠페인을 동반한 오피셜도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베테랑 수비수 강민수 전남 드래곤즈 복귀



강민수

전남 드래곤즈가 베테랑 중앙 수비수 강민수(37)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전남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난 강민수는 3시즌 동안 59경기에 나서 1득점을 기록했다. 이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으로 선발돼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등 7년간 A매치 53경기 출전 1득점으로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했다.

아울러 K리그 통산 456경기 출전 15득점 3도움을 기록중인 강민수는 전북, 제주, 수원, 울산, 상주, 부산, 인천에서 활약한 자타공인 K리그 현역 레전드다.

구단은 “186cm·76kg의 체격을 지닌 강민수는 공중볼 경합이 우수하며 대인방어에 강점이 있다”며 “베테랑 중앙수비수답게 그라운드 안팎에서 후배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설명했다.

강민수는 “다시 전남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기쁘고 기대된다. 전남에서 프로 선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고향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전남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흔쾌히 결정하게 됐다”며 “승격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전남을 떠날 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컸었다. 다시 돌아온 만큼 팬분들의 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결승 버저비터 필드골 성공 북미프로풋볼(NFL) 애틀랜타 팰컨스의 한국계 키커 구영회(왼쪽)가 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17주차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종료 2초를 남기고 필드골을 기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애틀랜타는 애리조나에 20-19로 승리를 거뒀다. /EPA-연합뉴스

광주·전남체육회 시무식…‘위상 제고 최선’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가 2023년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2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및 자체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광아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해 한해 쉽지 않았지만 시무식과 선수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청두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와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도 활발하게 열리는 만큼 광주체육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아 회장 직무대행은 “직원 모두가 체육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시민이 건강하고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도 이날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시무식 및 정년포상식을 개최했다.

최기동 회장 직무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15년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남체육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공개최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와 전남의 위상제고를 위해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진화 기자

토틀넘, 애스턴 빌라에 0-2 패 침묵한 손흥민, 평점 4~6점대

손흥민(31·토틀넘)이 얼굴 보호대를 벗어 던지고 그라운드에서 분투했지만, 팀의 패배 속에 아쉬운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1일 영국 런던의 토틀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지난해 11월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뛰어난 그는 전반 19분 만에 이를 벗어던지고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없이 뛰었다.

하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올 시즌 EPL 15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이 중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와 8라운드에서 서만 유일하게 득점포를 가동해 헤트릭을 기록했고, 이후 리그에선 8경기째 침묵

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경기 뒤 손흥민에게 평점 6.5점을 줬다.

선발로 출전한 선수 중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손흥민과 맷 도허티(6.5점)가 그 뒤를 이었다.

현지 매체의 평가는 조금 더 냉정했다. 영국 풋볼런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 브리안 힐까지 공격적 세 명에게 모두 4점을 매겼다. 골키퍼 위고 요리스(3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매체는 “손흥민이 얼굴 보호마스크를 그라운드 밖으로 던지고 남은 경기를 소화했는데, 여전히 자신감과 영감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국 스포츠뉴스는 손흥민과 케인에게 나란히 5점을 줬다. /연합뉴스

이강철호 WBC 대표팀 명단 내일 공개

올해 3월 8일 개막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 명단이 4일 공개된다.

KBO 사무국은 2일 “이강철 야구대표팀 감독과 조범현 기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대표 엔트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야구대표팀 코치진이 먼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 모여서 엔트리 회의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대표팀 기술위원들이 합류한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이강철 감독과 조범현 기술위원장이 직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관심 선수’ 50명을 WBC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KBO는 35명의 예비 명단을 발표할지, 30명 최종 명단을 발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9일까지 최종 엔트리 명단을 WBC 측에 알리면 되는데, 일부 선수의 건

강 문제가 해결되면 일찌감치 30인 엔트리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끌 WBC 대표팀은 다음 달부터 애리조나주 투슨 키노 스포츠클럽 플렉스에서 2주간 WBC 대비 훈련을 시작한다.

2006년 1회 대회 4강, 2009년 2회 대회 준우승의 성과를 낸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3년과 2017년에는 2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지 못했던 한국 야구는 이번 대회에 사활을 건다.

허규연 KBO 총재는 2023년 신년사에서 “3월 WBC와 9월 아시안게임, 11월 APBC까지 다양한 국제 대회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